



광주순복음교회에서 드려진 2026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CCC청년학생들이 찬양을 하고 있다.

## “복음·연합·선한영향력” 부활절연합예배 성료

광교협, 4월 5일(주일) 오후 4시 광주순복음교회서  
강사 이종석 목사 “실천적 무신론의 벽을 깨라” 설교

2026광주광역시 부활절연합예배가 부활절인 4월 5일(주일) 오후 4시 광주순복음교회(한상인 목사 시무)예배당에서 “복음·연합·선한영향력”을 주제로 열렸다.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정석은 목사·이하 광교협)가 주최하고 2026부활절연합예배준비위원회가 주관한 가운데 열린 부활절연합예배에는 광교협 직전회장 이종석 목사가 강사로 초빙되어 “실천적 무신론의 벽을 깨라”(눅 24:1~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목사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며 “믿지 못함으로 생기는 존재론적 불안으로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상실한 모습을 보면서,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물으며 한국교회가 회개할 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흥시키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연합예배에서 ▲남북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위하여 (광주NCC 회장 허정강 목사) ▲한국교회 회

복과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광산구교단협의회장 진태동 목사) ▲광주·전남 통합 활성화와 경제발전을 위하여(남구교단협의회장 김오봉 목사) 각각 특별기도하고 광교협 상임고문 문화성 목사의 축도로 제1부 예배를 마쳤다.

제2부 환원과 결단의 시간은 광교협 대표회장 정석은 목사의 부활절 메시지, 광교협 상임부회장 한상인 목사의 부활절 선언문, 광교협 사무총장 여상수 목사의 광고, 직전 상임고문 이원재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무리 됐다.

## “설교와 정치선동, 강단과 예배의 거룩성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전국순회 광주토론회

4월 9일(목) 오후 7시 광주YMCA 2층 백제실

정병오 장로·이박행 목사 발제  
강성열·송오식 명예교수 논평

건강한교회와사회포럼(상임대표 이박행 목사)·고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주최한 ‘설교와 정치선동, 강단과 예배의 거룩성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전국순회 광주토론회가 지난 4월 9일(목) 오후 7시 광주광역시 동구 YMCA 2층 백제실에서 열렸다.

이성진 목사(화순열린교회)의 사회, ‘고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 김승무 간사의 경과보고에 이어 테너 장호영 집사의 축송이 있었다. 이어 진행된 포럼에서 제1발제자 이박행 목사는 ‘손연보 목사의 정치설교에 대한 비판적 고찰’-성서신학과 공공신학의 통합적 관점-을 제목으로 발제했다.

이목사는 ‘정치설교의 신학적 한계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치설교가 정당성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신학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니다”며 “손연보 목사의 설교가 드러내는 첫 번째 문제는 배제적 언어의 사용”이라고 말했다.

특정 정치 인물을 제거되어야 할 존재로 형상화하는 순간, 설교는 죄와 불의를 고발하는 예언자적 언어에서 벗어나 타자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언어로 이동한다는 것. 그러나 성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선언(창1:27)하며, 이는 인간을 어떠한 상황에서든 단순한 제거 대상으로 환원할 수 없음을 뜻한다는 것이다.

실천신학적 대안과 결론으로 이목사는 ▲공적언어의 사용 ▲특정성이 아니라 복음의 보편적 가치와 하나님나라의 비전에 근거해야 ▲행동 촉구 이전에 분별 형성을 우선해야 ▲인간 존엄성과 화해 가능성 유지 ▲공동선의 지평 속에서 교회와 사회를 함께 살리는 방향을 지향 등 다섯가지를 제시했다. 이어 제2발제자 정병오 장로(주님의보배교회)는 ‘설교와 정치선동, 강단과 예배의 거룩성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정 장로는 ▲손연보 목사는 10.27

집회를 통해 주일 예배 성수 신학과 전통을 파괴했다 ▲12.3내란 이후 손연보 목사 설교는 설교 강단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변질시켰다 ▲손연보 목사의 행태의 본질은 제2의 신사참배이며 우상숭배다 ▲고신 총회는 손연보 목사 행태에 대해 분명한 입장장리를 통해 강단과 예배의 거룩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로는 “고신 총회가 2025년 3개 노회의 청원을 수용해 손연보 목사의 설교에 대해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서 1년간 연구해서 2026년 총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려신학대학원은 지금까지도 교단의 여러 이슈에 대해 성경과 교회헌통에 따른 정확한 분석과 균형 잡힌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교단의 신학적 근간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손연보 목사 설교와 관련하여 신대원 교수회가 분명한 신학적 판단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총회가 적절한 조치를 내려주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성열 명예교수(호남신학대학교, 구약학)와 송오식 명예교수(전남대법학전문대학원·광주기독교공동대표)의 논평과 참석자 토론 후 포럼 및 토론회가 마무리됐다.



지난 4월 9일 광주YMCA 백제실에서 열린 ‘설교와 정치선동, 강단과 예배의 거룩성’ 전국순회 광주토론회 모습.

## 광주교도소 6년 만에 감격의 세례예식 가져

전남노회 군경교정선교부·광주교정협의회 참빛교회 방문

광주교정협의회(기록분과회장 김양수 목사)와 전남노회 군경교정선교부(부장 백병철 목사)는 지난 4월 13일(월) 오후 3시 광주교도소(참빛교회)를 방문하고 예배와 세례예식을 가졌다.

230여 명의 재소자들과 함께 드린 1부 예배는 예장 전남노회 군경교정선교부장 백병철 목사의 인도로 조효성 목사의 기도, 이영숙 장로의 성경봉독(눅 12:13~21)에 이어 심상태 목사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는 은혜로운 메시지로,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어 2부 세례예식은 군경교정위원 김양수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고, 코로나 이후 6년 만에 다시 거행된 세례식이어서인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다.

총 8명의 수용자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이들이 한 자리에서 평생 단 한 번뿐인 세례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큰 감동이 되었다.

특히 세례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드리는 장면은 이날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사람의 눈에는 작아 보일 수 있는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새롭게 세워가고 계심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성찬식은 회중 전체가 함께하는 못했지만, 세례를 받은 8명

을 중심으로 경건하게 거행되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담 안 사역’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한 영혼이 변화되고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 귀한 사역에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한다.



광주교정협의회 기록분과위원장이며 전남노회 군경교정선교부 위원인 김양수 목사가 세례를 베풀고 있다.



예장 전남노회 군경교정선교부 위원들이 재소자 8명을 대상으로 베푼 세례식에서 안수기도를 하고 있다.

## “아가페컬처, 4월 책방음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년 4월 25일(토) 오후 4시  
광주재능기부센터 용봉점 복합문화공간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03 화인빌딩 4층)

“말이 멈추는 자리, 그 말과 침묵의 경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가페컬처광주 회원 여러분!  
꽃향기 가득한 4월, 우리 곁에 찾아온 따스한 봄처럼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줄 특별한 음악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4월 책방음악회는 “말이 멈추는 자리, 그 말과 침묵의 경계”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사색과 아름다운 선율이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말을 멈추고, 바이올린과 첼로, 피아노가 빚어내는 침묵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가페컬처 회원분들과 함께 이 감동을 나누고 싶습니다.

- ◆ 프로그램 내용  
여는 글: 서일권 (국제 NGO 세상을이여가는곳 상임이사)  
연주곡: J.S. Bach - Air on the G String  
J. Williams - Schindler's List  
F. Chopin - Nocturne  
F. Schubert - Piano Trio No.2 2mvt 등  
출연진: 바이올린 이혜명, 첼로 박효은, 피아노 김현옥·문수현

◆ 함께하는 마음  
이 공간은 모든 시민이 이용 가능한 공유의 공간이며, 모든 활동은 재능기부로 운영됩니다. 나눔과 순환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외계층을 돕는 뜻깊은 자리에 아가페컬처광주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및 신청: 010-8605-0675